

고은 불교대하소설



101

상 수는 갔다. 상수는 바다 한복판으로 떠나려 갔다. 그의 시인이여 여덟모퉁의 섬 보타리각에 닿아서 그곳의 관세음보살과 만나 이 세상의 모든 번뇌를 다 버린 몸으로 연꽃처럼 피어났는지 모르지만 그의 시인을 맨 작은 때에 따위가 전혀 보이지 않는 바다를 뒤로하고 대해 호영 명오가 탄 배는 파도 위를 자욱해야 하였다. 상수는 무욕도의 수정을 가장 맑은 동안으로 마감하였다. 그가 유난스럽게까지 하도록 관음의 화신으로 여긴 우녀와 그 우녀를 다시 관음으로 투영시키는 일이 끝나는 그의 먼 바다에 떠있는 섬을 남겨까지 된 것이다. 파도는 점점 사나워졌다. 진작 갈매기 따위는 자취가 없었다. 바다 위에서와 저너무렵은 길다. 그 긴 나조조차도 그 끄트머리는 여지없이 커다랗게 자꾸는 시간 속에 툭툭거리고 마는 것이다. 대해들이 어둡사리 무욕도 선착장에 닿은 것은 밤중이었다. 그동안 그곳에서는 몇 사람이 무척이나 걱정을 하였다. 인달과 우녀 그리고 소년 형자 이외의 사람들은 저녁의 빈 속 그대로의 불에 걱정을 가득히 채워 세사람이 무사히 돌아올 것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우녀는 "좋은 말 하나 들어오지 않아도 좋은 말 셋은 꼭 들어옵니다. 근심거리라는 다른데 있어야지요" 하고 그들을 넌 짓이 권진하고 그의 처소로 들어갔다. 좋은 말이라면 (잡아함경)의 어디가에 나오는 수행자에 대한 비유 아니던가. 제의 좋은 말은 채찍의 그림자를 보고

마부의 뜻을 따라 빠르고 느림을 스스로 조절한다. 제2의 좋은 말은 채찍으로 그 갈기나 꼬리를 살짝 건드리면 마부의 뜻을 헤아려 따른다. 제3의 좋은 말이란 채찍이 몸통에 닿으면 마부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제4의 좋은 말이란 쇠사슬의 채찍으로 몸을 치고 빠가 상한 때에야 놀라

그러니까 상수를 잃은 누이 상을조쳐도 먼 바다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던 것을 우녀가 그만두게 해서 상수가 눈을 감았던 간병심을 청소하게 한 것이다. 그것은 수행자에게는 슬픔이 독사보다 더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다. 슬픔 따위를 이겨내는 것은 방바닥과 벽과 문짝 따위를 몇번이고 쓸고 닦는 그런 실을 모르는 일이기

여러 정신까지 모여들어 온세상을 향한 자비의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었다. 더우기 상수와 같은 가장 정신적인 사람이 이 세상을 마치고 떠난 뒤라면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새로운 도량으로 거듭나야 하였다.

꾼 이 이런 참례 이후의 일이겠는가. 그들은 이 무욕도를 아침 저녁으로 훑고 씻고 닦아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을 지경이

었다. 살로 청정도량이였다. 그런 도량에 깃들인 밤은 이슬할수록 향기로웠고 찬년의 파도소리도 방금 들리는 새로운 소리였다. 그래서인지 모른다. 사람들은 그날밤 쉽게 잠을 청할 수 없었다. 밖에서 들리는 파도소리가 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아주 크게 들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생전 상수의 조용한 말소리가 새로 확대됨으로써 그 커진 파도소리로 된 것인지 모른다.

대해가 먼 바다에 다녀온 몸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파도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므로 처리리 깨어있는 심사로 문을 딱 쳐 열었다. 파도소리가 외곽 들려 왔다.

“ 슬픔이 독사보다 더 무서우니 도량안팎을 쓸고 닦자 도량이 청정해야 자비의 힘을...”

예성강 사공들

마부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그래도 이런 제4의 말도 좋은 말에 속하는 것이 너그럽다. 그것도 안되는 불락(不良)한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런 대다가 돌아오는 세사람을 경주는 우녀는 여자로서나 무욕도의 한 지도자로서나 얼마쯤은 거칠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제의 좋은 말을 저 세상으로 보낸 그녀로서는 며칠동안의 마음을 그렇게 단호한 말로 보여주고 대중 가운데서

때문인가. 이렇게 되자 인담을 비롯해서 박월 길성 승운에도 도량 간판을 쓸고 닦고 하면서 바다로 간 동료의 사신 따위를 그들의 생각 속에서 내버려야 하였다. 그런 뒤 깨끗한 마당이나 공터 구석구석까지 물을 뿌렸다.

물 뿌리노니 동쪽의 도랑 깨끗하여라 물 뿌리노니 남쪽 도랑 깨끗하여라 물 뿌리노니 서쪽 도랑 깨끗하여라



“상수선비 49재도 지내지 않는 것은... 우리 이 섬에서 떠나세”

물러난 것인지 모른다. 대해들이 돌아 온 것을 인담이 크게 위로하였다. “고생이었는데, 도반(道伴) 한 분의 영가를 마음에 지니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가... 어서들... 꼭 쉬시게... 내일 아침 해가 떠오르는 일도 잊고 꼭 쉬시게...” 물어온 사람들은 우선 물을 대위 물을 씻었고 바닷물에 적셔진 옷가지들을 바꿔 입었다. 그동안 상수가 누워있던 간병실을 비롯해서 이랬세 위채 별채의 요사(寮舍)들은 아주 깨끗이 쓸고 닦고 한 뒤였다. 한 사람이 죽어 나갔으므로 남은 사람마저 새로운 삼을 위한 청정(淸淨)이 갖추어져야 하였다.

물 뿌리노니 북방 도랑 깨끗하고 풍만하여라 이렇게 사방의 도랑을 찬찬한 그 가운데 머무를 불보살과 여러 천신 그리고 수행하는 자선들의 혈연과 법연까지를 아울러 찬찬히 된다. 본디 육방예경(六方禮經)에서 동쪽은 아버지, 남쪽은 스승, 서쪽은 아내, 북쪽은 친척과 여러 멀고 가까운 일가붙이, 아래쪽은 노비, 위쪽은 바라문이나 사문을 가리키고 있었다. 동서남북의 도랑을 청소한 다음의 찬탄은 이런 옛 인도의 예배풍습과도 닿아 있다. 그렇게하여 그들이 사는 도량이 청정해야 그 티끌 하나 없는 도량에 불보살과 법과 법의 화상(會上)뿐 아니라 우주의

다른 사람들도 일어나야 하였다. “호음... 한 친구가 떠난 곳에 곡락의 주악(奏樂)이라”고 대해가 그의 우렁우렁한 동글 해아리 같은 소리로 투덜대듯이 말하였다. “자금이 벌인가? 가을인가?” 라고 명오가 헛소리를 하였다. “풍은 화두일세... 그러나 그런 소리는 화두 집안에 가서 던져보게... 여기는 솟게 골목은 평어라고 굵어 살피면 되는 북조(寒調)거나 열불선이거나 하나...” 이런 대해의 말에서도 어지간히 도량의 물이 들어있는 그 자신을 내보이는 것이었다. “나도 모르겠네, 가을인지 봄인지...”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을 보낸 다음날 새벽 3시에 만우행자의 도량석에

공부가 무엇이라고 물으면 이놈이 저기 저 수미산더러 물어보아라 대답은 커녕 와르르 무너져 네 몸을 파놓아버릴 터이니 이런 소리가 우녀의 입에서 나왔고 상수의 귀가 듣고 있었다. 이렇게 다음날 아침부터 무욕도는 다시 경상으로 돌아야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 같았다. 그 때어난 정신의 상수가 없어진 것도 늙은 사람의 이빨 하나가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이 자연스러웠던가. 인담이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곳 도량에서는 일체 망축(亡畜)이 없다. 생축(生畜)이 없는데 망축이란 배움에 떨어 난 격이겠지... 앞으로 사십구재

놈의 지난 날 선장을 때문에 살아남지 못하였는데...” “순선장, 진선장 말인가. 그것들이야 이제 늙어버렸지 않는가.” “그 선장의 아들이 있지 않는가?” 길성이 순공이한테 대들었다. “그렇다면 너는 여기 남아있겠다 그말이냐?” “생각해볼 일이다 그 말이지.” 그때 박월이 그들을 밀었다. “머리를 더 두고 생각해보게, 순공이.” 그들은 이런 얘기를 주고 받은 것만은 아무에게도 흘리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엿들은 사람이 있었다. 소년형자 우식이었던 것이다.

그림·조향숙

‘사람은 왜 옷을 입는가’라는 질문으로 어느새 30년의 세월이 흐른다’

입어서 자연스러운 옷을 만들기 위해 첫인상 따라 색상, 디자인을 결정하고 컴퓨터로 재확인 한다

예복이란 매우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입는 옷

- 세계적인 이태리 원단 사용
- 95% 이상을 수작업으로 진행
- 맞춤복과 큰 차이가 없는 가격
- 컴퓨터를 통한 색상과 디자인 샘플링 작업
- 고객 자신이 미리 자신의 착용 모습 컴퓨터로 확인



예복의 집 SUN-SHINE 권오수 합장

옷을 만드는 일에는 '정성'이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혼이 깃든 예복 장인 30년”

몸보다 마음에 맞는 옷 만들기

- 본 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5-11 삼마B/D 1F TEL : 514-1118/9
- 공방터미널점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6 TEL : 551-0833

사회자와 주례사 그리고 양가이 부모님들까지도 신랑 신부와 어울릴 수 있게 격의를 살린 예복을 갖춰야 합니다.